



## 세계를 홀린 '미술계 싸이'

광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 발칙한 상상력 미국·유럽까지 접수

“안녕, 고흐. 난 조선에서 온 겸재 정선이라고 하네.”  
“오, 만나서 반가워! 먼길 오느라 고생 많았구먼.”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자네는 귀를 잘라 버렸나?”  
“궁금해? 미안하지만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싶네.”  
지난 17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전(12월28일~2월28일)이 열리고 있는 전시실에는 ‘세계의 만남(?)’이 열렸다. 인상파의 거장 반 고흐와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다. 겸재가 나귀를 타고 프랑스 아를르 고흐의 집을 찾아가는 긴 여정과 짧은 만남이 ‘설평기려’(雪平騎驢·정선 작)와 ‘아를르의 반 고흐의 방’(고흐 작)을 소재로 제작된 ‘겸재 정선, 고흐를 만나다’(55인치 스마트 TV·6분10초)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비록 3개의 LED 화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상의 교감이지만 발칙한 상상력과 위트, 빼어난 디지털 기술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키며 탄성을 자아낸다. 겸재가 고흐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백



**‘겸재 정선, 고흐를 만나다’**  
광주 전시회 관람객 줄이어

**세계 주요도시 전속갤러리**  
“내 모든 작업 원천은 광주”

미다.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전은 한과속에서도 주말 평균 200~3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시공을 초월한 두 사람의 깜짝상봉을 주선한 주인공은 광주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43)씨. 교과서나 미술관속의 명화들을 깎아내려 디지털 기술과 스토리텔링으로 덧씌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행사장에 전시된 이씨의 작품들은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사실 요즘 이씨는 ‘월드스타’ 싸

이의 인기가 부럽지 않다. 17일 상록전시관에서 가진 40분간의 짧은 인터뷰에도 이씨의 휴대폰에서는 진동음이 울려대었다. 그의 다이어리에는 ‘1월8일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1월23일 LA 아트페어, 1월27일 싱가포르 아트페어, 2월 고양문화재단 초대전, 3월 북경 아트미아 갤러리 초대전, 4월 홍콩 바젤 아트페어, 5월 북경 파이퍼링 갤러리 초대전, 6월 대구 리안갤러리 초대전, 9월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특별전, 태국 국립미술관 초대전, 중국 청두비엔날레, 11월 뉴욕 갈럭시 초대전, 12월 베

를린 갤러리 초대전 등 국내외의 전시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다.  
그의 작업을 듣는 스테프만 8명. 여기에 광주, 서울, 홍콩, 북경, 뉴욕, 베를린, 런던 등 각 도시별로 전속갤러리까지 두고 있다.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콜렉터 올리 시그(Uli Sigg)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등이 그의 콜렉터이다. 이쯤 되면 ‘미술계의 싸이’라고 부를만 하다.  
싸이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러브콜에 떠밀려 국제무대로 ‘강제진출’했다며 머지 않아 이씨도 외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 갤러리 관계자들이 서울이나 홍콩으로 작업실 이전을 제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작업의 원천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작업을 보여주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씨. 계사년 새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접수한 그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궁금하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과 인상파 거장 반 고흐의 가상 만남을 디지털 영상으로 담은 ‘겸재 정선, 고흐를 만나다’(2011년 작·55인치 스마트 TV). 조선시대 한강 주변의 진경을 그린 ‘설평기려’(맨 오른쪽)의 주인공 겸재가 ‘아를르의 반 고흐의 방’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영산강 승촌·죽산보도 부실...수질 악화 4대강 사업 감사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현 정부와 여권 일부가 나서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이를 계기로 이 지역 영산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따라 설치된 주요 보들과 마찬가지로 광주 남구의 승촌보와 나주의 죽산보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승촌보와 죽산보 역시 유실과 세굴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보강

공사를 실시하면서 바다보호공을 막연히 확장하는 등 임시 방편으로만 보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가 설치되면서 일부 지역의 수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의 경우 체류시간의 변화가 적은 죽산보 직하류 구간에는 조류농도가 14% 감소했으나, 죽산보 상류의 경우 강물 체류시간이 2.3일에서 18.9일로 늘어나면서 조류 농도가 195%까지 증가했다.  
둔치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분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에 인접한 광주시 서구 서창4지구의 경우

배후인구가 794명/km임에도 유지관리비는 1.25억원/km에 불과하지만, 총남 부여군 정동지구는 152명/km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5.01억원/km에 달했다.  
이에 대해 관도업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보(淤) 안전·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은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대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선(先) 국정조사-후(後) 특검’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며 “명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감을 희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영광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도 균열

이따른 고장과 비리로 불안감을 주고 있는 영광원전의 핵심 부품에서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제이봉 안내관의 미세한 균열로 가동이 중단된 영광원전 3·4호기에서 이번에는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일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영광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을 비율은 각각 2.59%, 2.39%로 나타났다. 1만6428개의 세관 가운데 각각 425개, 393개가 사용 못하게 편선했다.  
관막음이란 증기발생기(발전기 터빈을 돌려 증기를 만드는 기기) 세관

(細管)에서 균열이나 균열 조짐이 발생하면 이를 막는 것을 말한다. 세관은 증기발생기 내 열을 전달하는 관으로 터질 경우 외부공기와 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막을 법적 기준치는 영광 1·2호기 5%, 3~6호기 8%다. 기준치를 넘어서면 증기발생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증기발생기 1개의 교체 비용은 1000~2000억원 정도다.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박은

섭 소장은 “영광 3·4호기 관막을 비율이 법적 기준치를 아직 넘지 않았지만 다른 원전에 비해 균열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핵심부품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돼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호 영광공수는 18일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위원회 장순홍 위원을 만나 방사능 유출 사고시 진료를 전담할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지원의 건의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3년 2월 7일(목)  
입학문의 062)605-1112  
062)605-1023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C-Class  
24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 추월산의 겨울 아찔한 빙벽타기



지난해 12월부터 쏟아진 잦은 눈으로 담양군 용면 추월산 보리밭 인근에 길이 100m 안팎의 거대한 빙벽이 형성됐다. 19일 광주시산악연맹 소속 산악구조대원이 아이스 바일과 아이젠(크렘폰)을 이용해 수직의 빙벽을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 11년만의 재회